

‘초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 반발 확산

전교조 광주지부, 조기취학 정책 성명 발표 등 반대 목소리 높여 놀이 중심 교육부 누리과정 정면 배치 주장...현장 혼선 우려

정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추진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지역 곳곳에서 만 6세에서 만 5세로 입학 연령을 낮추는 정부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 만 5세 조기취학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부는 “교육부의 초등 입학 연령 1년 하향 정책은 취입 연령을 한 살 낮춘다는 경제적 목적만을 위해 놀이로 관계 맺고 성장하는 유아의 발달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학 연령 하향의 부작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광주지부는 “이번 정책이 교육부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한 2019 누리과정을 정면 부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만 5세 학생들을 1년 이상 빠르게 더욱 강도 높은 학습과 교육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단체는 “한국인 최초로 필즈 상을 수상한 허준이 교수는 ‘필즈 상 수상 기념 강연 및 해설 강연’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소중한 학창 시절을 공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 평가받기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면서 “지나친 입시경쟁과 선행학습으로 공부에 대한 호기심과 학습 동기를 꺾어버리는 한국 교육의 고질적 병폐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유아를 경제성 관점으로 보는 정부에 대해 비판했다.

광주지부는 “만 5세 조기취학 정책은 유아교육에 대해 모를 뿐 아니라 유아를 존중하지 않고 경제적 논리로만 대하는 정부의 빈곤한 교육철학을 드러낼 뿐”이라며 “박순애 장관은 교육계와 온 사회를 뒤흔드는 만 5세 조기취학 정책에 대해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계획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만약 그러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교육을 모르는 교육부 장관의 사퇴만 재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교육·보육·시민사회 단체들은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구성하고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방안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보육·유아

교육·초중등 교사 단체부터 학부모 단체까지 총 36개 단체가 참여했다.

범국민연대는 “만 5세 초등 조기취학은 유아들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30일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대 서명도 받고 있다. 여러 지역 맘카페에는 서명에 동참하자는 글이 공유되고 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도 이날 오후 2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만 5세 조기 취학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임재만기자·연합뉴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별도 지역 날씨 최저·최고온도

지역	강수확률(%)	지역	만조	간조
광주	30-60	목포	05:04	10:16
전주	20-20	순천	17:11	22:20
대구	60-60	여수	11:43	05:34
부산	30-20			17:45

▶날씨안내 : 국번없이119

전남교육청, 학원 코로나 방역 특별 점검

학원 5천561곳·교습소 592곳 대상

전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학원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선다.

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방학 중 학생 출입이 많은 학원(5천561개소)·교습소(592개소)를 대상으로 지역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와 함께 오는 26일까지 방역 특별 점검에 나섰다.

이번 방역 특별 점검은 방학 중 학생들의 학원 이용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과 권고된 방역수칙을 중

로 여수지역 학원을 방문해 방역수칙 게시, 발열체크, 환기·소독 등 권장 준수사항을 점검하며 코로나19 재유행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학원 등에 소독약, 공기청정기, 자가진단키트 등 방역용품(10억3천890만원)을 지원했다”며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에서의 감염은 지역사회로의 전파에 직결되는 만큼 특별점검을 통해 감염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원 관계자는 “방학 중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교육청과 협력해 감염병 확산을 막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임재만기자

광산구, 경찰과 화물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

광주 광산구가 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9월 말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자가용 화물차량 유상운송 행위, 불법 구조변경,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유무, 상호 미표시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경로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윤근기자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계 공모

광주 남구는 1일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남구 국민체육센터는 남구가 추진 중인 진월동 다목적체육관에서 송암동 생활체육공원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스포츠 타운 조성 중 실내 스포츠 활동의 주축이 되는 공간이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 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건축사 및 건축사 사무소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계 공모 응모 접수는 이달 5일 단 하루 진행되며 8일에는 현장 설명회가 실시된다.

또 설계 작품 제출은 오는 9월13일까지며 최종 당선작은 같은달 20일 발표된다. /김다인기자

재택 모니터링 중단...고령층 사각지대 우려

대면진료 유도...광주 251개 원스톱진료센터 운영

이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모니터링이 중단되면서 고위험군 관리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방역당국은 모든 확진자에 대해 대면 진료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재택치료 모니터링이 없어질 경우 고령층과 고위험군이 증상을 판단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 의문이 제기된다.

1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재택치료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

로 방역당국이 하루에 한 번 전화를 하는 건강 모니터링이 중단되고 대면진료를 유도한다.

이는 위험군과 고위험군을 나누지 않고 누구나 증상이 있으면 대면진료를 권장하는 시스템이다.

이날 0시 기준 광주에서는 1천495명이 신규 감염돼 누적 57만2천757명이 확진됐고, 전국 일일 확진자 4만4천689명 중 위중증 환자는 287명으로 최근 보름 사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부터 진료, 먹는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진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